

보도시점 2025. 7. 17.(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2025. 7. 16.(수)

생태관광지역에서 신나는 여름을 보내요

- 여름방학을 활용해 지역만의 특별한 생태계 관찰과 체험을 한 번에
- 전국 27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11개 지역은 지역화폐 사용도 가능

환경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27개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전국 40개 생태관광지역이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태관광지역’이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이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전국 생태관광지역에서 여름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7개 지역이며, 이 중 11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 인제, 평창, 옥천, 고창, 순천, 문경, 창녕, 제주, 광주, 하동, 서귀포

201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인제군 생태마을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에 속한 냇강마을과 신월리 달뜨는 마을은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따라 펼쳐진 마을 풍경과 달빛 아래 고요한 밤의 정취를 만끽하며 자연의 소리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인근의 방태산 아침가리계곡을 따라 걷다가 물속에 풍덩 들어가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탐방(트레킹), 장작을 때서 짓는 아궁이 가마솥 밥짓기 체험 등을 통해 전통 시골집 분위기도 느껴볼 수 있다.

경남 창원의 주남저수지는 낙동강 하구와 더불어 낙동강 줄기에 형성된 동남내륙 지역의 최대 철새도래지로 널리 알려졌으며, 2021년에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주남저수지는 사계절 내내 도시민들의 자연생태학습장과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분홍빛 향연의 연꽃단지를 노니는 개개비, 물총새 등 여름 철새를 탐조할 수 있으며, 생태 교육을 연계한 물총놀이도 해볼 수 있다.

충청남도 서천은 금강과 서해바다가 만나는 지점으로 다양한 갯벌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검은머리물떼새(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의 최대 서식지인 유부도가 있다. 서천 갯벌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관찰하며 갯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으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진행하는 생물보호 임무(미션)를 수행하는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제주 서귀포의 치유호근마을은 서귀포 마을의 원형을 유지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관광지역으로, 마을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생태체험과 치유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치유의 숲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을에서 정성껏 준비한 제주만의 도시락도 맛볼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 상세 정보를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누리집(eco-tour.kr)에 7월 21일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누리집을 방문하면 커피 모바일 쿠폰을, 생태관광지역의 체험 후기를 남기면 지역특산품을 선물로 주는 추첨 행사도 마련됐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관광은 자연을 지키면서도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며, “올여름은 생태가 우수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 생태관광지역에서 즐겁게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생태관광지역 프로그램 현황(27개). 끝.

※ 별첨 2025년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 상세자료(PDF)

담당 부서	환경부 자연공원과	책임자	과 장	정호경 (044-201-7316)
		담당자	사무관	유영란 (044-201-7311)



유형별	지역 및 프로그램명
계곡.강.호수 탐방형	▲물에 빠지며 걷는 트레킹과 아궁이 가마솥 밥 짓기의 인제의 '자연이 차린 인제 하루여행'
	△계곡과 마을을 오가며 마을의 유래와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울진의 '왕피천계곡 트레킹'
	△불 꺼진 전시관 탐방과 을숙도에서 야영체험을 할 수 있는 부산의 '을숙도 밤숲'
	▲백룡동굴 탐사와 동강래프팅이 신나는 평창의 '지질생태탐방코스'
	△괴산호에서 즐기는 유람선 타기 체험의 '산막이 옛길 및 괴산호'
	▲향수 호수를 마을 선박으로 즐기며 정원 체험이 가능한 옥천의 '무해한 하루'
	△강에서 수영을 즐기는 영양의 '강 수영장'
습지 탐방형	▲운곡람사르습지의 풍부한 생태적 가치와 논습지를 관찰할 수 있는 고창의 '오감만족 동행'
	▲어민들이 탔던 뽕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배를 타고 순천만 습지에서 바다로'
	▲국내에서 유일한 돌리네* 습지를 둘러 볼 수 있는 '문경 돌리네 습지와 오미자청 담그기'
	▲습지생물의 다양성을 경험해볼 수 있는 창녕의 '신기한 습지생물이야기'
	△연꽃단지에서 탐조도 가능한 창원의 '연꽃단지에서 즐기는 여름습지'
	△습지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생각해볼 수 있는 밀양의 '자연과 소통하는 테마생태관광'
	△레일바이크를 타고 화포천 습지를 탐방하는 김해의 '아우름길 탐방'
	▲제주에서는 습지와 숲을 돌아보는 '동백동산 물, 숲, 새', 꽃자왈 내 반딧불이를 관찰 할 수 있는 '반딧불이와 함께 여름나기'
갯벌.바다 탐방형	△갯벌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안산의 '대부도 방아머리 갯벌체험'
	△생태체험과 해안사구, 동해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강릉의 '에코서핑'
	△'서산 버드랜드의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갯벌 생물 관찰과 국립해양생물자원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서천의 '갯벌.바다 덕분에'
	△해상투어와 갯바위체험의 영산도 "'부두막" 로캉스'
	△도둑게 유생털이* 시기의 남해 양강만 '바닷가 생명일기'
	* 배(胚)와 성체의 중간 시기로 독립생활을 영위
생태숲 탐방형	▲광주의 '무등산 생태숲 체험과 평촌도에 체험'
	△태기산 생태관광이 가능한 횡성의 '하늘아래 첫 학교, '태기분교'
	△예산의 '나뭇잎 놀이'
	△남원의 '지리산의 주능선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보실까요?'
	▲반딧불이를 관찰하고 물속 생태탐사까지 가능한 하동의 '반딧불이와 옛학교길 탐방'
	▲서귀포에서는 고사리숲을 탐방하고 정령의 질문을 받아보는 프로그램과 치유의 숲에서 로컬푸드를 맛볼 수 있는 '미로숲길 걸으멍 맛있게 가득차롱'

※ ▲표기 지역은 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지역